

대전광역시와 세이셸 빅토리아시간 우호교류협정서 교환 보고

제출연월일: 2009. 8.

제 출 자: 대전광역시장

1. 추진배경

-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세계경제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협력 필요성 증대
- 우리시의 우수한 과학인기술 인프라와 수출 경쟁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필요
- 세이셸정부에서 대통령 대전방문 및 수도 빅토리아시와의 우호협력관계 설정을 제안
- 세이셸공화국은
 - － 인도양의 한복판에 위치하며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(COMESA) 가입국
 - － 아프리카연합(53개국) 가입국으로 아프리카 및 유럽국가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국가
 - － 향후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진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강한 나라

2. 빅토리아시와 교류현황

- 2008. 9 세이셸 외무장관 대전방문 (여수세계박람회 관련)
- 2008~2009 에코힐링 스포츠, 문화이벤트 개최 ((주)선양 후원)
 - 음악회 1, 한국문화의 밤 2회, 마라톤대회 2회
- 2009. 7. 27 주한 세이셸 명예총영사관에서 대통령 대전방문 및 대전~빅토리아 자매결연희망의사 표명

3. 향후 추진계획

- '09. 8. 제 184회 임시회 우호협력도시체결 보고안건 제출
- '09. 9. 1~18 제 184회 임시회 회의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보고
- '09. 10. 15 대전~빅토리아시 우호협력 MOU체결
 - ※ 세이셸대통령 명예시민증 수여식과 병행

대한민국 대전광역시와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시
우 호 교 류 협 정 서 (안)

대한민국 대전광역시와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시 (이하 “양 도시”라 칭한다)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양 도시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, 과학기술, 환경, 문화예술, 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한다.
2. 양 도시는 각도시의 발전과 소속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도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, 기술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.
3. 양 도시는 상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교류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.

본 의향서는 2009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, 서명하였다.

대한민국 대전광역시장
박 성 호

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시
주중대사 필립 레갈